제약기업 리베이트 관행 강력제재

공정위, 제약 7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시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1월6일 발표했다.

서동원 부위원장은 "제약업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리베이트가 많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며 "병원과 제약기업간의 음성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리베이트 관행이 적발됐다"며 "2008년 말까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10월 말 7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1/06>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